

“다기능 종합어항 시설 건설 개시

속초 '대포항' -어항개발 신모델 구축 방안까지 846억원 투입



■ 지난 2월 6일 '대포항'에서는 김영남 해양수산부차관을 비롯하여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기능종합어항개발' 기공식이 열렸다.

한국 어항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

동해안 수산물의 집산지이자 설악산 관광 명소의 일부로 알려진 「대포항」이 21세기형 새로운 어항개발 모델인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탈바꿈된다.

지난 6일 '대포항'에서는 김영남 해양수산부차관을 비롯하여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기능 종합어항개발'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김영남 차관은 차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5일제 근무확산에 따른 여가 활용 기회증대로 해양성 휴양과 관광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어항개발에 있어서도 단순한 수산업 기능에서 벗어나 어촌관광자원을 활

성화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해양관광·레저 및 문화·복지·휴양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21세기형 환경 친화적인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해양수산부가 372억원을 투자해 외곽시설인 방파제 610m를 시설기로 했다.

또 속초시는 474억원을 투자해 방파호안 470m와 물양장 740m 및 부지조성 5만 6600평을 비관리정 어항시설사업으로 추진 하되 속초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조성되는 부지 중 공공부지를 제외한 토지로 정산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사 시공은 쌍용건설이 민관합작의 제3섹터방식으로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 정주 생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구상되어져 오던 다기능 종합어항이 실제 개발로 이어졌다는 것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어항 개발이 지역단위 개발 계획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정부, 지역주민, 민간사업자가 동참하는 첫 시험작이라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향후 유사개발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어항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4면>

어항의 관광화 어촌의 공원화

한국어항협회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 해군호텔(구 해군회관) 영빈관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200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와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 3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과 함께 특별행사로 광주시지정 문화재 이임례씨의 “춘향가” 판소리 공연을 가진다.